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자서전 분석: 삶의 의미찾기

조선희

Research Fellow, Hunter-Bellevue School of Nursing, City University of New York

Meaning of Life in Wives of Alcoholics: Autobiographical Method

Cho, Sunhee

Research Fellow, Hunter-Bellevue School of Nursing, Hunter College of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Y, US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life-stories and meanings of life in wives of alcoholics by analyzing their autobiographies. **Methods:** Autobiographies were collected from 20 participants who produced their own autobiographies in the logotherapeutic autobiography program at community alcohol counseling centers in Korea. The data were coded to identify themes of agency and communion using the manual coding system developed by McAdams, and analyzed by the existential approach. **Results:** There were 214 coded episodes in twenty autobiographies. There were 128 agency themes and 86 communion themes. The most common themes were Love/Friendship. Five themes emerged from the autobiographical episodes on the existential perspective: 1) overcoming the suffering, 2) meaningful people and relationships, 3) spiritual maturation, 4) caring and helping, and 5) finding a meaning of life.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wives of alcoholics who participated in the logotherapeutic autobiography program found the meaning of life through their suffering. Furthermore, a study on existential nursing interventions for people who have meaninglessness in life needs to be done.

Key words: Alcoholism, Autobiography, Existentialism, Qualitative research, Spouse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알코올 의존은 현대 사회의 범죄, 자살, 신체질병 및 정신장애 그리고 가정 파탄의 직접적,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족의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가족병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알코올 의존자의 부인은 장기간 알코올 의존자와의 역기능적인 가정생활로 인하여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공동 의존(Cermak, 1986; O’Gorman, 1993)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의 문제(Cheong & Yeon, 1982; Rae & Forbes, 1966)가 심각하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특히, 알코올 의존자의 부인은 정상 음주자의 부인에 비해 우울과 불안 증상이 유의하게 높고(Cheon, 2004; Cheong & Yeon, 1982; Rae & Forbes, 1966), 정신생리 증상인 신체화 경향과 적대감이 높다(Cheon, 2004; Cheong & Yeon, 1982). 그 외에도 강박(Cheong & Yeon, 1982), 공포불안(Cheon, 2004)이 정상 음주자의 부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이러한 어려움들은 남편의 폭력,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빈곤과 가족 갈등 등과 함께 총체적으로 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며, 그 결과 이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처하게 된다(Lee, 2001).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이러한 부정적 정서 반응들은 알코올 의존자와 자녀들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하며, 그 결과 남편의 회복 과정을 악화시키거나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

주요어 : 알코올 의존자, 자서전, 실존주의, 질적 연구, 부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Sunhee

Hunter-Bellevue School of Nursing, Hunter College of City University of New York, 425 East, 25th Street, Box #922, New York, NY 10010, USA
Tel: 1-212-481-4346 Fax: 1-212-481-8237 E-mail: sch0076@hunter.cuny.edu

투고일 : 2008년 4월 9일 심사위원회일 : 2008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9일

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긍정적 변화는 가족 체계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Minuchin, 1974), 알코올 의존자 부인은 알코올 의존자 가족 체계의 핵심 구성원이며, 알코올 의존 관련 정신보건 서비스를 거부하는 알코올 의존자 및 그 자녀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정신보건 서비스는 알코올 의존자 개인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알코올 관련 정책(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알코올 의존자 부인에 관한 간호학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연구자만이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Kang, 1995; Lee, 2001)를 수행함으로써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연구는 남편이 알코올 의존자가 되고 난 이후의 경험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결혼 전의 성장 환경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유년 시절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특정 경험이 아닌, 삶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 삶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여 대상자의 전 생애적 삶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자서전 연구 방법은 한 사람의 삶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개인을 전체 삶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발달 연구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자서전 분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사회학, 역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생애사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서전 연구 방법이 다양한 학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Shin, 1999) 안타깝게도 간호학에서는 자서전적 방법론이 아직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학 분야에 자서전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대상자 인식의 틀을 넓히고 간호 지식체 개발에 대한 유용성을 탐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이 경험한 자신의 생애는 어떠한가”와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초점을 두고,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자서전을 연구의 텍스트로 하여 실존주의적 접근을 통해 삶의 고통에 맞서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경험체계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이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되고, 고통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이는 알코올 의존자 부인에 대한 실존주의적 이해를 돕고 관련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존주의적 관점 틀을 적용하여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이 직접 쓴 자서전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알코올 의존자의 부인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탐구하였다. 구술 자료를 전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자서전을 텍스트로 하여 분석하였다.

1. 자료 수집

자료 수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S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알코올 의존 진단을 받은 남편과 결혼 생활 경험이 있는 부인이며, 현재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거나 별거 혹은 이혼, 사별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알코올 상담센터 세 곳과 강원 지역의 알코올 가족친목(AI-Anon)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연구동의서를 취득한 후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Cho, 2008)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의미요법과 자서전 쓰기를 통합하여 개발한 집단 프로그램이다(Table 1). 총 24명의 연구 참여자가 참여에 동의하고 참여했으나,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서전을 완성한 사람은 2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주 1회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프로그램에서 의미찾기 집단 활동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자서전을 쓰는 시간은 30분이었다. 자서전의 주제로는 경험적 가치와 태도적 가치를 큰 주제로 삼았으며, ‘내 삶에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과의 경험은 어떠한가?’, ‘내 삶에서 위기의 순간은 어떠한했

Table 1. Fundamental Structure of Logotherapeutic Autobiography Program (LAP)

Session	Topics	Life stage	Value
1	Self-introduction Orientation Producing chronological table	A whole life	
2	Significant persons in lives I	Before marriage	Experiential
3	Significant persons in lives II	After marriage	Experiential
4	Crises and attitudes toward them I	Before marriage	Attitudinal
5	Crises and attitudes toward them II Attitudes toward death	After marriage	Attitudinal
6	Re-reading my autobiography Sharing & evaluation	A whole life	Creative

며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를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글쓰기 주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Cho, 2008)에서 얻은 자서전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2. 연구 참여자

연구의 참여자는 알코올 의존 진단을 받은 남편과 결혼생활 경험이 있는 여성 20명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 가족 모임 또는 AI-Anon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46세였다. 이 중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7명, 이혼 2명, 사별 1명이었다. 남편과의 평균 결혼 기간은 20년이며, 11명이 결혼 전부터, 7명이 결혼 후 2년 이내에 음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4명, 고등학교 졸업이 13명, 그 이하가 3명이었고, 절반이 넘는 13명이 기독교를, 3명이 천주교를 믿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불교는 없었다. 남편의 음주 관련 입원횟수는 평균 3.7회였으며, 가족모임이나 AI-Anon 참여 기간은 평균 28개월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McAdams의 자서전 코딩 방법(McAdams et al., 1996)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각 주제별 코딩 지침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자서전 전체 내용을 에피소드 단위로 분리한 후 각 에피소드에 위 주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각 에피소드에 위 주제의 근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가 있으면 1점을 주고 근거가 없으면 0점을 주었다. 연구자는 주어진 에피소드 내에서 그 주제가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1점을 주었고, 문자적인 기술 속 함의를 읽지 않으려고 주의하였다. 또한 단어 이면에 있는 임상적 추론과 확대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1인의 간호학 박사 과정 생에게 연구자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파악을 위해 각 사례별, 에피소드별로 Cronbach's α 를 산출한 후 신뢰도 0.8 이하의 사례를 모아 다시 분석하여 전체 사례에서 신뢰도가 0.8 이상이 될 때까지 서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코딩 후 각 주제별로 묶어 실존주의적 접근으로

Table 2. Guideline for Coding Autobiographical Episodes

Theme	Guideline	
Agency	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tory protagonist strives successfully to master, control, enlarge, or perfect the self. Through forceful or effective action, thought, or experience, the protagonist is able to strengthen the self, to become a larger, wiser, or more powerful agent in the world. Another relatively common expression of SM involves the protagonist's experiencing a greatly enhanced sense of control over his or her destiny in the wake of an important event.
	SV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protagonist attains a heightened status or prestige among his or her peers, through receiving a special recognition or honor or winning a contest or competition. The implication in SV is that status or victory is achieved via a vis others. There is always an interpersonal and implicitly competitive context in SV.
	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protagonist of the story feels proud, confident, masterful, accomplished, or successful in 1) meeting significant challenges or overcoming important obstacles concerning instrumental achievement in life or 2) taking on major responsibilities for other people and assuming roles that require the person to be in charge of things or people.
	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ubject is enlarged, enhanced, empowered, ennobled, built up, or made better through his or her association with someone or something larger and more powerful than the self. The empowering force is usually either 1) God, nature, the cosmos, or some other manifestation of a larger power in the universe; or 2) a highly influential teacher, mentor, minister, therapist, parent, grandparent, or authority figure who provides critical assistance or guidance for the individual.
	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rotagonist experiences an enhancement of erotic love or friendship toward another person. LF refers primarily to love and friendship between peers, as in heterosexual or homosexual relationships and same-sex as well as opposite-sex platonic friendships. It does not include tender feelings of nurturance or caring as experienced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experience must be centrally about the development of love or friendship in a particular relationship.
Communion	DG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erson experiences a reciprocal and noninstrumental form of communication or dialogue with another person or group of others. DG usually takes the form of a conversation between people.
	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individual reports that he or she provides care, assistance, nurturance, help, aid, support, or therapy for another, providing for the physical, material, social, or emotional welfare or well-being of the other.
	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 UT, the protagonist experiences a sense of oneness, unity, harmony, synchrony, togetherness, allegiance, belongingness, or solidarity with a group of people, a community, or even all of humankind.

SM=Self-Mastery; SV=Status/Victory; AR=Achievement/Responsibility; EM=Empowerment; LF=Love/Friendship; DG=Dialogue; CH=Caring/Help; UT=Unity/Togetherness.

분석하고 기술하되, 연구의 주된 질문인 '삶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코딩된 에피소드를 반복하여 숙독하고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만을 모아 주제를 구성함으로써 최종 연구 결과를 서술하였다. 또한, 결과 서술 시에는 자료의 내용을 집약한 소제목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연구 결과

1. 자서전 코딩 결과

위의 코딩 과정을 거친 사례별 주제 코딩 횟수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20개의 자서전에서 214개의 에피소드가 코딩되었으며, agency 주제가 communion 주제보다 약 1.5배 많았다. 128개의 agency 주제 중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통찰, 경험을 통한 통제력 획득의 내용을 담고 있는 Self-Mastery (SM)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교나 가족 또는 스승으로부터 커다란 힘을 얻는 것, 그리고 성숙의 동기와 관련된 주제인 Empowerment (EM)가 많았다. 86개의 communion 주제 중에서 61개가 자신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 과거 및 현재의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Love/Friendship (LF)였

Table 3. Numbers of Autobiographical Episodes Coded by Themes

Case	Agency				Communion				Total
	SM	SV	AR	EM	LF	DG	CH	UT	
A	1	0	2	1	2	0	1	0	7
B	4	2	2	3	2	0	1	1	15
C	3	0	1	3	7	0	1	0	15
D	3	0	0	0	1	0	2	0	6
E	2	2	0	0	1	0	0	1	6
F	2	1	1	1	1	0	0	0	6
G	2	0	0	4	3	0	1	1	11
H	0	1	2	2	2	0	1	0	8
I	6	2	1	2	7	0	1	1	20
J	2	0	0	2	3	0	0	0	7
K	2	1	0	0	0	0	0	0	3
L	6	1	1	3	2	0	2	1	11
M	3	0	0	4	4	0	0	0	11
N	2	0	1	3	1	0	0	0	7
O	3	0	1	1	2	0	0	1	8
P	2	0	1	2	5	0	2	0	12
Q	3	0	1	5	7	0	0	1	17
R	1	0	2	3	2	0	1	1	10
S	2	0	1	2	7	0	0	0	12
T	2	0	2	5	2	1	2	1	17
Total	53	10	19	46	61	1	15	9	214
	128				86				

SM=Self-Mastery; SV=Status/Victory; AR=Achievement/Responsibility; EM=Empowerment; LF=Love/Friendship; DG=Dialogue; CH=Caring/Help; UT=Unity/Togetherness.

는데, 이는 전체 여덟 개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이다. 그 밖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여 성과를 얻어낸 경험과 관련된 주제를 나타내는 Achievement/Responsibility (AR), 자녀들과 주변의 알코올 가족들을 보살피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주제인 Caring/Help (CH)가 많았다.

2. 자서전 내용 분석 결과

1) 주제 1: 고난, 그리고 승리

연구 참여자들은 8.15 해방과 한국 전쟁 등의 시대적 상황, 1980년대 근대화의 물결에서 소외된 가난한 시골 마을이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났으나 성적이 좋거나 또는 미술, 체육 등에 재능이 있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여 목표를 성취하던 노력가의 이야기가 자서전의 전반부에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Status/Victory (SV)와 AR에서 대부분 발견된다. 자서전 속에서 이들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김정고시, 아르바이트 등은 어려웠던 중, 고등학교 시절을 상징하고 있으며, 가족과 학교의 무관심은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오기로 버텨내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공부를 좋아했던 지방 소도시의 여학생은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자 혼자의 힘으로 서울 유학을 선택하고 갖은 고생 끝에 대학에 합격하는 인간 승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너무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해서 부모님이 1년 후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김정고시”를 거쳐 서울로 고등학교를 진학, 고등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게 되었다. 형편이 어려워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하여 1년 다니다 포기하고 1년 후 다시 진학하여 3년 열심히 공부하여 동국대에 합격하였다.

어머니를 잃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고군분투해야했던 과거에는 삶의 시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나는 통학할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새벽이슬 맞으며 아버지의 오토바이로 몸이 쫘뽀 언 채 학교를 다녔고 버스가 없어 첫차를 타도 지각을 해야만 했다. (중략) 집에서는 학교를 그만 다니라는 빗발 같은 아버지의 성화와, 학교에서는 지각과 야간 학습에 참여하

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미움과, 엄마를 잃은 내 마음 속의 슬픔과,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오기의 통학 길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도 힘겨웠다.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림을 늘려나가는 것이 삶의 보람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큰 성취와 기쁨이었다. 결혼 후에는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 마침내 집을 장만하거나 가세를 일으키는 것이 이들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동생과 함께 자취생활을 했는데 스스로 벌어서 방도 하나 얻고 가구와 부엌용품 사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슴 뿌듯하고 즐거웠다. / 00동 집으로 이사하고 20평 아파트로 들어오던 2년 전을 생각하면 난 아직도 가슴이 설레며 몽클하여져서 웬지 모를 기쁨과 즐거움과 만감이 교차된다. / 다음 해부터 장사가 잘 되어서 아들 등록금 다 해주고 1982년 길음동에 1,300만 원짜리 한옥 52평 집도 샀다. / 장사는 너무 잘되어 첫 복날에 사람들이 밖에 줄을 섰다. 나는 안팎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열심히 했다. 주변엔 나의 칭찬이 대단히 많았다. 어디서 저런 며느리를 보았냐고.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남편이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우울증이 생겨 삶의 희망을 놓으려 할 때였다. 그러나 이들은 혹독한 삶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간호하여 회복시키거나, 우울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었다.

난 포기하지 않았다. 희망은 내 안에서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꼭 살아서 값진 인생을 살 것이라고! / 우울증이 깊어지고 해서 그 후 취미 생활을 하라고 주위에서 권했다. 그러다가 고전무용 선생과 인연이 되어서 무용을 배우고 장고, 살풀이를 배워서 무용 발표회도 하고 찬조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남편한테 무대에 한 번만 서겠다 허락을 받아 3년 동안 무대 활동을 했다.

2) 주제 2: 의미 있는 사람들

자서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친밀감을 형성했던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첫사랑과 그 이후에 만난 남편과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잊을 수 없는 옛사랑, 남편과의 연애, 어린 시절에 큰 의미를 주었던 친구,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우정 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알코올 의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남편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옛사랑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자서전에 나타난 이성관계는 다른 사람을 잊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원하지 않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가 특징적이다. 이들은 상황 때문에 견잡을 수 없는 이성 관계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품행이 올바르지 못했던 이성(현재의 남편)의 행동이 오히려 멋있어 보여 청소년기에 공부를 팽개치고 연애에만 몰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남편과의 만남을 후회하는 맥락 속에 놓여있다.

난 그냥 빠져들고 있었다.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연을 맺어야 될 것 같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난 앞뒤도 안재고 빠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고 싶었던 것 같다. / 사춘기가 지나면서 남자에 대한 환상이 많던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모든 정신이 그 남자 친구에게 빠져들었다. 학생으로서 모범생과는 동떨어진 문제성이 있는 그런 모습조차 내겐 멋있어 보였다. / 남편을 만난 것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안보면 보고 싶어 안달복달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때의 마음에 단돌이 많은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다. 이상하리만큼 끌려 들어갔다.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특성 중에 빈번히 거론되는 문제이다. 이는 남편의 알코올 문제를 가족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한 노력 또는 남편의 삼엄한 감시 등으로 인해 형성된 심리사회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서전 속에는 어린 시절, 친구와 깊은 우정을 쌓고 때로는 그 관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인용문에는 항상 붙어 다니거나, 나보다 더 어려웠던 친구, 외로웠던 어린 시절 나를 좋아해주었고 가난하고 부끄러웠던 우리 집을 좋아했던 친구의 이야기가 드러난다.

00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깨끗하고 밝게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며, 나의 부모님이 계심이 소중한을 알려준 친구로, 학교 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알게 해준 친구이다. / 외로웠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가 없어 거의

외톨이로 지냈다. 나는 사춘기라 대가족이 함께 좁은 곳에 모여 사는 것도, 할머니가 중풍이셔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창피해 했지만, 그 친구는 매일 같이 찾아와 우리집에서 TV도 보고, 밥도 먹고, 할머니하고 대화도 많이 했다. 내게 사랑을 많이 가르쳐 준 친구였다.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와의 우정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성인기 이후에 만난 친구가 삶의 괴로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신랑보다 비밀이 없는' 친구는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자이며 괴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다.

3) 주제 3: 영적 성장

이 주제는 신이나 자신보다 권위가 있는 존재 또는 가족 내 웃어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더 성장함을 깨닫는 것과 관련이 된다. 자서전에서는 신 또는 종교인, AI-Anon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거나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였다. 남편의 반복되는 술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종교의 힘으로 절망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마다 영적 스승에게 찾아가 의논하고 도움을 구함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며, 알코올 가족모임을 통해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지혜를 배우고 자신과 직면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렇듯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은 자신의 영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갖거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 성장을 도모한다.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서 우리 부부의 삶은 천지개벽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 몇 번이고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끝까지 극복할 수가 있었다.(중략) AI-Anon의 힘이 부족해 신앙의 힘으로 나의 어린 시절을 검토하면서 주님이 치유하시고...(후략)

김00 교수님과의 만남. 이 분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보내준 나의 천사다. 내가 남편의 심한 술 문제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분을 만났다. 그 분을 만나고 나는 나의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를 고쳐가는데 길을 알려주신 분이 다. / 냉정한 차원에서 가족을 정리하려다보니 신앙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신부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가족모임을 다니면서 나의 용기가 더 생겼다. (중략) 가족 모임에 인도되어 그 모임에서 한 신부님과 수녀님, 가족 모임의 동기들을 만나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었다. / 알코올 상담센터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다.

4) 주제 4: 보살핌

Caring/Help (CH) 주제는 타인의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안녕을 위해 보살핌, 도움, 양육, 지지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이다. 자서전에는 끊임없는 부부갈등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자녀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죄책감, 남편처럼 알코올 의존자가 되어버린 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따뜻한 모정이 표현되어 있다.

만이인 딸. 고귀한 성격을 지닌 자식이다. 30세에 결혼해서 남매 낳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술을 먹고 여러 가지 물건, 옷 등을 많이 사며 살고 있다. 입원을 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남편의 반대로 실패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우리 자식들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 /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니가 어려울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고 싶다. 어려움을 나누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웅덩이를 덮어주고 싶다. 엄마는 힘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용감하고 지혜로운 줄만 알았다. 우리 딸은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5) 주제 5: 삶의 의미

Self-Mastery (SM) 주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극적인 통찰력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되며, 삶의 새로운 목표나 계획 또는 미션을 깨닫는 것을 표현한다.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의 자서전에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순간, 자신이 자기중심적이며 역기능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통렬한 자각,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주는 의미, 자신의 삶에 대한 정이나 평가, 삶의 목표나 미션에 대한 깨달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연한 기회에 AI-Anon이나 알코올 상담센터를 알게 되고 조금씩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된다. 남편이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만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주었던 상처를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되는 과정이 아래 인용문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는 남편처럼 알코올 의존자가 되어버린 아들과 발달장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통렬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중략)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나와 가족들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략) 그러나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고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느끼면서 나의 태도의 변화를 주고 내 생각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 남편과 힘겹게 술로 인해 고통스럽게 지낼 때 나는 Al-Anon을 받아들였다. 나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이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다. 그리고 내가 일조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더욱 가슴이 아팠다. / 그동안 나는 내 상처 때문에 큰 딸이 받을 상처가 어떤 마음일지 헤아려보지 못하고 살았다. / 모두가 내가 부족한 탓이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며, (중략)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모두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때에 아들만 남겨두고 외국에서 사는 동안 그 죄책감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비 넉넉히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 아들을 열심히 양육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해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아이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그 아이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이다. (중략)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나서 남편과 가족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절망적이었던 인생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알코올 의존자였던 남편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무능력했던 남편은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새로운 자각은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만약 얘기 아빠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까... 알 수 있는 날이 왔어도 더 늦게 나이가 많아서일 것이다. / 나에게 이런 것들을 깨우쳐줘서 고맙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인생을 같이 살아서 고맙다고 말할 것이다. /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상처들이 나에게 상처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였던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똑순이가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난 남편으로 인해 책임감이 강해졌다.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볼 때,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에게 모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참아주고 노력해주었던 남

편으로 인해 지금의 가정 행복이 지켜져 온 것 같아 진심으로 고맙게 느껴진다. / 남편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고 아쉬움은 많지만 후회는 별로 없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고 만나서 싸움도 많이 했지만, 남보다 짧은 연애 기간이지만 평생 사랑할 양의 충분한 사랑을 했으니까. 평생 살면서 연애도 못해보고 사랑의 애뜻한 마음을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가엾은 남편! 아주 많이 사랑하는 남편! 평생을 항상 옆에서 시달리더라도 함께하고 싶다.

자신에 대한 통찰과 남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태도로 다시 바라보게 된다. 남편의 술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자 하는 다짐,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한 발 나아가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자신의 몫이라는 실존적 자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남편의 가족들도 모두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다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정의 선을 그으면서 그들을 편견 없이 다시 내 눈으로 바라보고 싶다. / 내 인생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현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멀리 있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중략) 이제는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내 주변 사람에게 행복해지는 길을 선물해주어야 된다고, 그래야 비로소 내 행복도 찾을 수 있으니까. / 용서와 화해도 내가 해야 할 몫인데,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올바른 생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하겠다. /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말고 생활 속에서 만족하며 행복을 잘 꾸고 다듬어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들은 삶의 태도의 변화에서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관조하게 되는 단계에 이른다. 알코올 의존자 남편과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서 체념하거나 절규하며 살아왔지만 문득 돌아보니 지나온 삶은 자신이 성장해온 과정 속에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혼자 생각하면 인생은 정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 삶이란 그렇게 좋은 것만도 나쁜 것만도 아닌, 부딪치며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 그

러면서 자라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 그 속에서 남편과의 문제는 너무 많이 포기하고 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좀 더 투쟁해야 하지 않았나 되짚어 생각해본다. / 훌륭한 엄마가 되는 방법도 많이 배울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고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나온 삶을 관조하며 마침내 '내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실존적 물음을 던지는 단계에 이른다. 남편은 자신의 삶에서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닫힌 세계 속의 '나'는 자기 성찰을 통해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다른 알코올 가족들인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Frankl (1971)이 삶의 의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단계라고 말한 'giving to the world'의 상태이자 자기 초월적 태도에 해당한다.

남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져 있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다. / 나는 지금 나 처럼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 가족들을 도우며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나에게 맡겨진 그 분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 내가 지금껏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 또 친정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소명이나 나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의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 이를 위해 이러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배워 겸손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특히 알코올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해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나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다지며 /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우리 부부가 치유를 받고,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의 생애를 탐구하기 위하여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서전을 쓰도록 하고 자서전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간호학 연구 중에서 전기적 방법(biological method)을 이용한 것은 구술사적 연구나 서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자서전 방법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자서전 연구 방법에서는 자서전 쓰기의 주제와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자서전은 '삶의 의미 찾기'라는 목적을 가진 집단 요법 과정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삶의 의미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회기의 주제에 따라 분석된 결과가 특징적으로 드러나, 2-3회기는 사랑과 우정의 주제인 LF가, 4-5회기는 통찰력, 임파워먼트의 주제인 SM, EM 주제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텍스트인가에 따라 그에 적합한 분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와 같이 의미요법 집단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자서전을 분석함에 있어 실존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서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알코올 의존자 남편과의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영적 성장을 추구해옴과 동시에 가족 갈등의 희생자가 된 자녀에게 강한 죄책감과 모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서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난 것은 자기 성찰과 자각 그리고 삶의 의미였다. 남편의 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Al-Anon이나 알코올 상담센터를 알게 되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서 자기 성찰과 자각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족에게 주었던 상처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현실적 고통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게 된다. 태도의 변화와 내적 자각은 피해자로서의 자기 개념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자 하는 다짐을 통해 주체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며, 용서와 화해가 자신의 몫이라는 실존적 자각으로까지 이어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생을 전체적으로 관조하게 되는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게 된다. 이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문구에 극명히 표현된다.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은 미래의 삶에 대한 낙관에 이르러 마침내 '내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실존적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 이때 고립된 세계 속의 자아로부터 열린 세계 속의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은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책임감'과 관련되어 있으며,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초월적 태도이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하며, 인간 존재는 자기 초월을 통해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Frankl, 1971).

본문의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자서전에 드러난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상처로부터 시작하

고 있는데, 이는 Lee (2001)의 연구에 나타난 개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알코올 의존자 남편과의 삶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두 연구(Kang, 1995; Lee, 2001)는 남편의 음주와 관련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삶의 고통에 치중하여 결과를 서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남편으로 인한 고통의 에피소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본 연구 방법이 제한된 에피소드만을 코딩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서 배제되기 때문인데, 이것이 이 분석방법의 제한점이라고 생각된다. Lee (2001)가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Kang (1995)은 삶의 고통 속에서 영적 변화를 통하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Kang (1995)의 '영적 변화' 개념이 본 연구의 주제 3 (영적 성장) 및 주제 5 (삶의 의미)와 크게 유사하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영적 변화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와 본 연구가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Q 방법론으로 여성가장의 삶의 의미를 탐구한 연구에서 여성가장의 삶의 의미 인식 유형을 '미래적 자기 초월형', '현실적 책임완수형', '관계와 만남 지향형', '현실적 자기충족형', '이타적 헌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Choi, Kim, Sin, & Lee, 2001), 본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가장 집단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자서전에서 표현한 삶의 의미는 '이타적 헌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Choi 등(2001)은 이 유형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들로 자기초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유형이면서, Frankl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유형이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삶의 의미와 자기 초월적 태도와 일치하고 있는 대목이다.

Agency와 Communion의 성향은 자기 개념, 성 역할, 성격 특질 등을 포함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Agency 주제는 성취 동기와 관련되고 Communion은 타인과의 결속과 관련된다(McAdams et al., 1996). Agency 성향의 인물은 타인과의 차별화를 사용해 자서전적 기억이 구조화되며, Communion 성향은 통합적 방식을 사용한다(Woike, Gershkovich, Piorowski, & Polo, 1999).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Agency 주제가 Communion 주제보다 약 1.5배 많이 나온 것은, 연구 참여자가 삶의 고통에 맞서 고군분투하면서 관계보다는 목표지향적, 문제 해결적 성향을 더 뚜렷이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알코올 의존자 부인이 만성 신체질환자의 부인보다 더 명령적이고 자신이 결정권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Son, Han과 Chung (1992)의 보고와도 유사하다. 한편,

Agency 성향은 만성 질환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신체 질환자 집단에서 건강의 예측인자이다(Helgeson, 1993, 1994). 이는 본 연구 참여자가 관계지향성의 상대적 부족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심리적 건강의 예측인자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더 건강하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 사이의 상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심리적 안녕 상태가 좋고(Zika & Chamberlain, 1992) 더 많은 희망과 더 적은 우울(Chang & Burbank, 2000; Mascaro & Rosen, 2005)을 나타낸다. 반대로 과거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다(Debats, Drost, & Hansen, 1995). 심지어, 삶의 의미는 암환자의 고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Kang, 2000, 2001). 이와 같이,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삶의 의미 발견이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요법 자서전쓰기 프로그램 참여 후에 삶의 의미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정신건강 문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집단 활동이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Cho, 2008). 이는 다른 만성 질환자의 배우자들이 자신의 돌봄에 대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울과 역할 긴장, 돌봄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사실(Farran, Miller, Kaufman, & Davis, 1997)과도 관련이 된다. 따라서 알코올 의존자 부인을 포함한 만성 질환자의 가족들에게 실존주의적 간호증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과 시련, 고통의 경험을 통해 돌봄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에 대한 탄성(resilience)을 촉진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미요법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의 자서전을 실존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생애 이야기와 삶의 의미 추구 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서전 분석 결과, 다섯 개의 주제-고난 그리고 승리, 의미 있는 사람들, 영적 성장, 보살핌, 삶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이 주요 주제들을 통해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이 삶의 고통에 맞서 어떻게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알코올 의존자 부인들이 고통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는 알코올 의존자 부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존주의적 간호증재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만성 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실존주의적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ermak, T. L. (1986). Diagnostic criteria for codependency.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18, 15-20.
- Chang, S. O., & Burbank, P. M. (2000). Meaning in life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259-271.
- Cheon, W. H. (2004). *Mental health, co-dependence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wives of alcohol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Cheong, K. I., & Yeon, B. K. (1982). Alcohol dependent males and their wive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1, 487-494.
- Cho, S. (2008). Effects of logo-autobiography program on meaning in life and mental health in the wives of alcoholics. *Asian Nursing Research*, 2, 129-139.
- Choi, S. O., Kim, S. N., Sin, K. I., & Lee, J. J. (2001). A study on the meaning in life of matriarch: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548-560.
- Farran, C. J., Miller, B. H., Kaufman, J. E., & Davis, L. (1997). Race, finding meaning, and caregiver distres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9, 316-333.
- Frankl, V. E. (1971).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NY: Washington Square Press.
- Helgeson, V. S. (1993). Implications of agency and communion for patient and spouse adaptation to a first coronary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07-816.
- Helge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 Kang, E. S. (1995).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wives of alcoholics. *Nursing Science*, 7, 39-63.
- Kang, K. A. (2001). Factors influencing suffering of patients with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561-570.
- Kang, K. A., & Oh, P. J. (2000). A Correlation study of suffering, burden and meaning of life in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331-341.
- Lee, K. W. (2001). The Processes of life experiences that wives of alcoholic husbands hav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406-420.
- Mascaro, N., & Rosen, D. H. (2005). Existential meaning's role in the enhancement of hope and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73, 985-1013.
- McAdams, D. P., Hoffman, B. J., Mansfield, E. D., & Day, R. (1996). Themes of agency and communion in significant autobiographical scenes. *Journal of Personality*, 64, 339-37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The Blue Bird Plan 2010*.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inuchin, S.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Gorman, P. (1993). Codependency explored: A social movement in search of definition and treatment. *Psychiatric Quarterly*, 64, 199-211.
- Rae, J. B., & Forbes, A. R. (1966). Clinical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wives of alcohol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2, 197-200.
- Shin, K. H. (1999). Exploration on biographical method in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 4, 89-110.
- Son, B. K., Han, C. H., & Chung, S. Y. (1992). A study on the behavioral trend and personality of the alcoholics' wive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1, 949-956.
- Woike, B., Gershkovich, I., Piorkowski, R., & Polo, M. (1999). The role of motive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autobiographical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00-612.
- Zika, S., & Chanberlain, K.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133-145.